

건설산업동향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로 본 지역건설산업구조 및 연관효과 분석

윤영선

2007. 5. 4

- 서론 : 분석 자료 및 목적 4
- 지역별 건설산업 산출액 현황 및 구조 5
- 건설산업의 집중도와 특화도 7
- 지역별 건설산업 부가가치율 9
- 지역별 건설투자 비중 구조 9
-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유발효과 12
- 지역간 건설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 14
- 지역별 건설산업의 고용구조와 유발효과 16
- 요약 및 시사점 19

요 약

-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건설산업의 특성과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 건설업은 생산과 고용 양 측면에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지역산업연관표상의 28개 업종 가운데 산출액 기준으로 전산업에 대한 건설업 비중은 5개 지역에서 3~4위권에 해당되며(강원권은 1위), 고용 기준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를 차지
- ▶ 지역별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건설투자의 비중은 수도권과 같이 지역경제가 발달된 지역일수록 낮은 반면, 강원권과 같이 저성장 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 또한, 지역경제가 발전될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주택 및 비주택 등 건축부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저성장 지역은 토목건설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 모든 지역에서 건설산업의 자기지역내 및 타지역 생산과 고용유발효과가 타 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경제구조의 차이로 지역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음.
 - 건설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는 수도권과 같이 고성장 지역이 강원권과 같은 저성장 지역에 비하여 자기지역에 대한 효과는 더 높은 반면, 타 지역에 대한 효과는 더 낮게 나타나고 있음.
- ▶ 건설산업은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파급효과 역시 크므로 건설투자의 지속적 확대가 요구되나,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요구됨.
 - 수도권, 경남권과 같이 지역경제가 발전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이 요구됨.
 - 반면, 강원권이나 전라권과 같이 상대적으로 성장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중심의 지속적 공공투자 확대가 요구되나 다만,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춘 투자 노력이 요구됨.
- ▶ 본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건설산업의 특성과 구조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지역별 수주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성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건설산업의 상황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서론 : 분석 자료 및 목적

- 한국은행은 2007년 3월 공식 통계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발표하였음.
 - 지금까지 개별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들이 연구 목적을 위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사용한 적은 있으나,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작성·발표한 것은 최초임.
 - 본 분석에서 구분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등 6개 지역이고,¹⁾ 산업은 건설업을 포함하여 총 28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경제의 실태 및 특성과 산업부문의 지역간 상호영향 및 의존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임.
 - 이러한 정보와 분석 결과는 지역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특히, 지역내 특정 산업부문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간 연관관계 및 영향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지역 산업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본 분석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지역별 건설산업의 특성과 상호의존관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둠.
 - 구체적으로 지역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규모 및 특성과 건설산업활동이 지역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파악코자 함.
- 본 분석 결과는 지역건설산업의 특성과 상호 작용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들을 제공하게 될 것임.

1)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며, 강원권은 강원도, 충청권은 대전·충남·충북, 전라권은 광주·전남·전북·제주, 경북권은 대구·경북, 경남권은 부산·사·울·산·시·경남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

■ 지역별 건설산업 산출액 현황 및 구조

- 2003년도 기준 전국 건설산업의 총산출액은 141조 500억원인데, 이 중 45.3%에 해당되는 63조 9,500억원이 수도권에 산출됨.
 - 수도권 다음으로는 경남권이 22조 4,800억원으로 15.9%를 차지하고, 전라권이 17조 8,600억원으로 12.7%를 차지함.
 - 충청권과 경북권은 각각 14조 8,800억원, 14조 8,000억원으로 두 지역 모두 1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강원권은 전국 산출액의 5.0%에 해당되는 7조 900억원을 산출하여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건설업 산출액은 건설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중간투입액과 부가가치를 더한 값으로 당해 연도의 건설 기성 총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지역별 건설업 산출액 구조

(단위 :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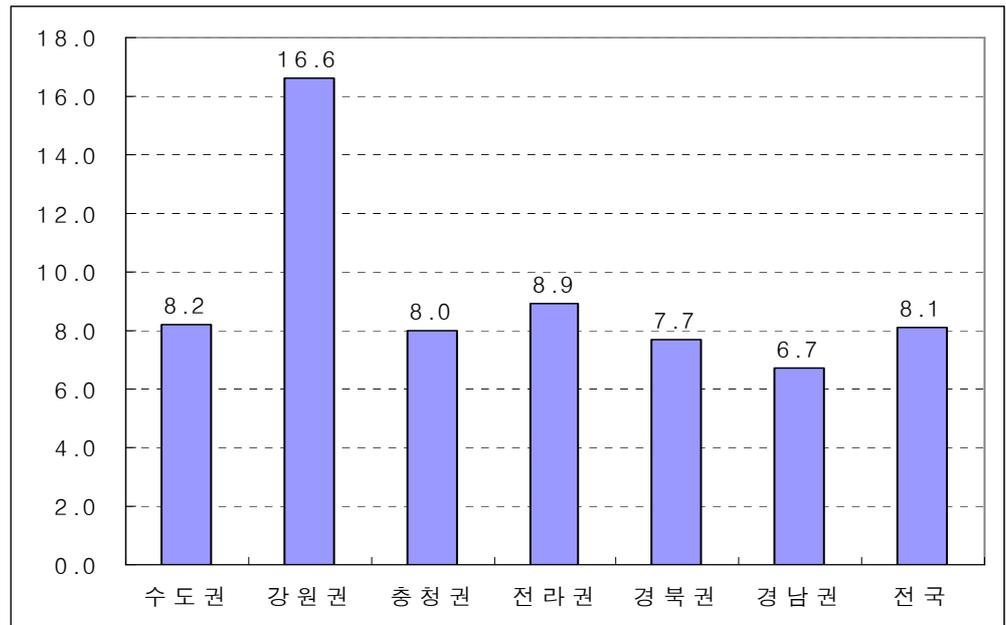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건설산출액	63,951.8	7,085.0	14,879.0	17,855.2	14,796.2	22,479.1	141,046.5
지역별 건설산출액 비중	45.3	5.0	10.5	12.7	10.5	15.9	100.0

- 각 지역별로 지역 건설산업의 지역내 산출액에 대한 비중을 보면, 산출액 규모가 가장 적은 강원권 건설산업이 전체 지역내 산출액의 16.6%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강원권의 건설산업 산출액 규모 7조 900억원은 강원권 전체 제조업 산출액 8조 4,300억원의 84%에 해당되는 규모임.
- 강원권이 타 지역에 비하여 지역내 건설업 산출액 비중이 2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역내 제조업 등의 기반이 취약하여 건설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비하여 나머지 권역의 지역내 건설산업 비중은 대체로 7~9%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전국적으로 지역내 건설업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권으로 6.7% 이고, 강원권 다음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전라권으로 8.9%임.

지역 내 건설산업의 비중

(단위 : %)



- 한편, 타산업과 비교한 지역내 건설산업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28개 분류 업종의 산출액 비중 랭킹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강원권은 건설업이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위 업종임.
-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및 경북권에서는 건설업이 3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규모 제조업이 입지하고 있는 경남권에서만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 평균으로도 건설업은 부동산 및 서비스업(10.4%, 181조원)과 전자 및 전기기기(9.2%, 159조 4,000억원) 다음으로 3위의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 28개 업종 기준 건설산업의 위상

(단위 : %)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1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5.3)	건설 (16.6)	화학제품 (11.1)	화학제품 (11.1)	전기 및 전자기기 (19.6)	수송장비 (15.9)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10.4)
2위	전기 및 전자기기 (9.7)	공공행정 및 국방 (12.4)	전기 및 전자기기 (10.4)	제1차 금속제품 (10.4)	제1차 금속제품 (11.5)	석유 및 석탄제품 (8.2)	전기 및 전자기기 (9.2)
3위	건설 (8.2)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9.1)	건설 (8.0)	건설 (8.9)	건설 (7.7)	화학제품 (7.9)	건설 (8.1)
4위	교육 및 보건 (7.1)	음식료품 (8.7)	음식료품 (7.6)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8)	건설 (6.7)	교육 및 보건 (6.4)
5위	도소매 (6.2)	교육 및 보건 (5.0)	교육 및 보건 (6.9)	교육 및 보건 (6.2)	교육 및 보건 (5.6)	일반기계 (6.0)	화학제품 (6.2)

■ 건설산업의 집중도와 특화도

- 건설산업의 집중도와 특화도는 지역내 건설산업의 특성과 역할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임.²⁾
 - 집중도는 집중계수를 통하여 판별할 수 있는데 집중계수³⁾가 1에 가까울수록 특정산업의 지역별 분포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0에 가까울수록 특정산업의 지역별 분포가 전산업과 유사함을 의미함.
 - 특화도는 산업별 입지계수⁴⁾를 통하여 판별할 수 있는데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할 경우 해당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정의함.
- 건설산업은 집중계수가 0.041로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집중도가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2) 지역산업연관표에서 말하는 집중도는 특정산업의 지역별 분포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통상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몇 개 기업의 시장 점유비를 설명하는 집중도 개념과는 다름.

3) 지역별 집중계수는 특정산업의 지역별 분포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지표이며

$$\frac{1}{2} \sum_{지역수} |전산업의 지역별 구성비 - j산업의 지역별 구성비| \text{로 나타냄.}$$

4) 산업별 입지계수는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이 전국에 비하여 어느정도 특화되어 있는가를 판단해보는 지표로 LQ로 나타냄.

$$LQ_i^j = (X_i^j / X_i) / (X^j / X)$$

단, X_i^j : i 지역의 j산업의 생산액, X_i : i 지역의 지역내 총생산액

X^j : 전국의 j산업의 생산액, X : 전국의 전산업 총생산액

- 집중계수가 높은 산업은 석유 및 석탄제품(0.523), 광업(0.403), 인쇄·출판 및 복제(0.399), 제1차금속제품(0.344) 등인 반면, 집중계수가 낮은 산업은 건설업 이외에 교육 및 보건(0.064), 음식 및 숙박(0.073), 운수 및 보관(0.093) 등임.
- 건설산업의 집중도가 가장 낮다는 것은 건설업은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된 전형적인 지역밀착형 산업임을 의미함.

산업별 집중계수 현황

집중계수가 높은 산업		집중계수가 낮은 산업	
석유 및 석탄제품	0.523	건설	0.041
광업	0.403	교육 및 보건	0.064
인쇄·출판 및 복제	0.399	음식점 및 숙박	0.073
제1차 금속제품	0.344	운수 및 보관	0.093
농림어업	0.339	전력·가스·수도	0.099

- 건설산업의 특화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는 강원권이 2.045로 가장 높고, 전라권과 수도권은 1을 초과하는 반면, 충청권, 경북권, 경남권 등 3개 지역은 1 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 건설산업의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산업이 지역내 타 산업에 비하여 특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타 산업에 비하여 건설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원래 특정산업의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경우 지역생산의 일부를 외부지역으로 수출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건설업은 속성상 지역 내에서 생산·투자되는 활동이므로 강원권의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한다는 것은 건설업의 지역 내 생산비중이 타 산업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강원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1을 전후하는 계수를 보이고 있는 데, 이는 지역 건설산업활동이 전반적인 지역내 평균적인 경제활동과 비례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건설산업의 지역별 입지계수 현황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입지계수	1.010	2.045	0.983	1.094	0.952	0.828

■ 지역별 건설산업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율은 전체 산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중으로서 산업별로 생산방식의 특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남.
- 건설업 부가가치율은 노동력 투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종이나 농림어업에 비하여는 낮지만, 제조업보다는 높은 특징을 보임.
- 건설업 부가가치율은 지역별 편차가 거의 없이 대체로 45%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지역별로 건설생산 방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만, 일부 지역별로 나타나는 약간의 차이는 지역별로 주요 건설 생산 공종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지역별 주요산업의 부가가치율 현황

(단위 : %)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건설	45.0	46.3	44.4	46.1	45.0	45.1	45.1
농림어업	51.0	61.5	61.2	62.5	60.6	57.0	59.4
제조업	29.9	35.8	29.1	25.3	27.8	28.1	28.5
서비스	61.4	64.1	64.7	62.6	63.8	61.1	62.0
전산업	47.0	53.6	42.6	41.9	41.6	39.4	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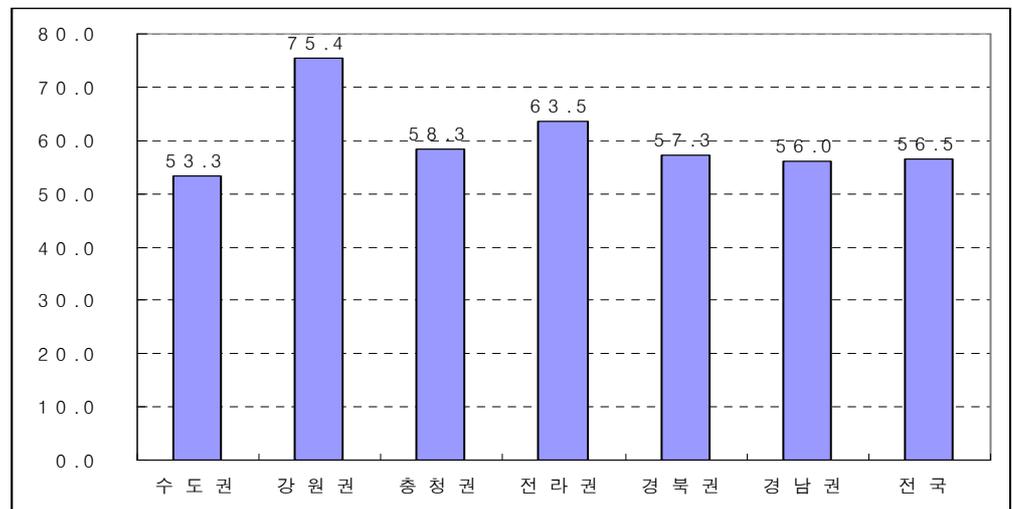
■ 지역별 건설투자 비중 구조

- 건설산업 활동은 투자적 활동으로서 기계류와 더불어 그 지역의 고정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됨.
 - 이와 같이 지역 내 고정자본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설투자의 특징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의 구조적 관계 및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음.

- 지역별로 지역내 고정자본형성 가운데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강원권이 75.3%로 가장 높고, 전라권이 63.5%로 그 다음을 차지함.
- 나머지 4개 지역은 모두 55%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53.2%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내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건설투자의 비중은 지역내 건설 산출액의 비중 특징과 마찬가지로 강원권과 전라권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지역경제의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것과 관련이 높음.

지역별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건설투자의 비중

(단위 : %)



- 한편, 건설투자는 주택건축과 비주택건축, 교통시설건설 및 기타토목건설 등 네 부문으로 분류되는데 지역별로 매우 상이한 비중의 특징을 보임.
- 건설투자 가운데 주택건축의 비중은 수도권이 39.1%로 가장 높고, 경남권이 28.8%로 그 다음을 차지함.
- 이에 비하여 강원권은 건설투자 중 주택건축의 비중이 8.2%로 가장 낮고, 전라권 역시 13.5%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비주택건축의 경우는 수도권이 37.2%로 가장 높고, 충청권이 35.7%, 경남권이 31.3%로 비교적 높은 편임.
- 강원권의 비주택건축은 주택건축보다는 높은 19.1%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역별 비교에서는 여전히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

- 이에 비하여 건설투자에 대한 교통시설건설과 기타토목건설의 비중은 강원권이 각각 42.6%와 30.1%를 차지하여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수도권은 각각 9.0%와 14.7%를 차지하여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권이 각각 19.9%와 20.2%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대체로 지역내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건설투자의 비중이 낮은 지역일수록 주택 및 비주택건축의 비중이 높은 반면, 높은 지역은 교통 및 기타 토목 건설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임.
- 즉, 타 지역에 비하여 건설투자의 비중이 낮은 수도권과 경남권은 주택건축과 비주택건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건설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강원권과 전라권은 교통시설과 기타토목건설의 투자 비중이 특히 높은 특징을 보임.
- 이는 지역경제의 성장도와 활력이 높은 지역일수록 건설투자의 비중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그 구성에 있어서도 공공투자에 대한 의존 비중은 낮고, 주로 민간부문으로부터 발생하는 주택 및 비주택건축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
- 이와 반대로 지역경제의 성장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건설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민간부문 중심의 건축수요보다는 공공건설투자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지역별 건설투자의 부문별 비중

(단위 : %)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주택건축	39.1	8.2	19.7	13.5	18.8	28.8	28.1
비주택건축	37.2	19.1	35.7	25.8	28.7	31.3	32.7
교통시설건설	9.0	42.6	21.8	27.6	29.6	19.9	18.6
기타토목건설	14.7	30.1	22.8	33.1	22.9	20.0	20.6
건설투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이상의 건설투자 특징은 지역 발전 내지 경제 수준 정도가 건설투자의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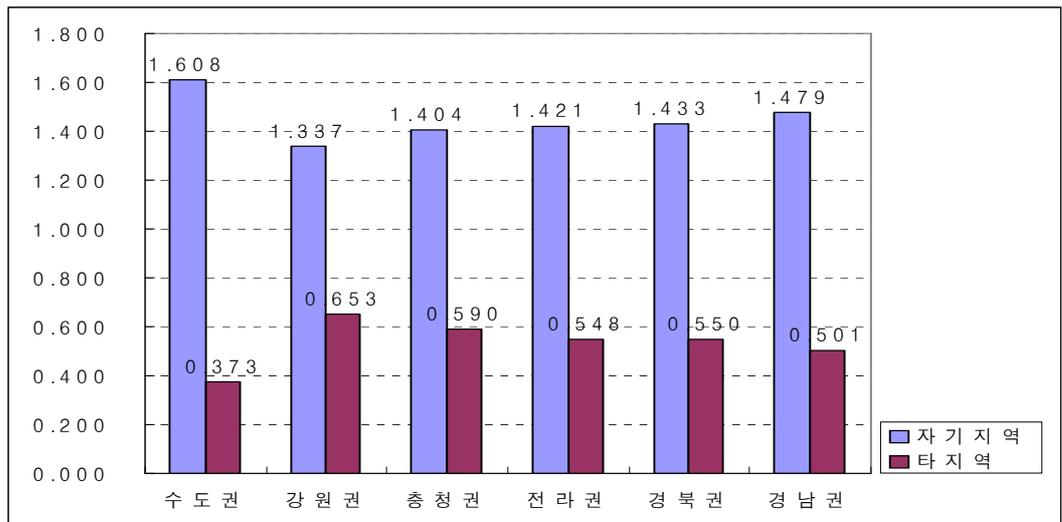
- 지역경제가 발전될수록 건설투자의 비중은 떨어지는 한편 주로 민간부문의 주택 및 비주택투자가 더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지역경제가 낙후된 지역일수록 건설투자의 비중이 높고 그것도 공공부문 투자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임.
- 건설투자 패턴으로 보아 대체로 수도권, 경남권, 충청권, 경북권, 전라권, 강원권 순으로 민간 부문 중심의 건축이 활성화되고, 공공부문 중심의 토목건설은 비중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유발효과

- 지역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지역내 건설산업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직·간접으로 자გი지역과 타 지역에 대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함.
- 지역별로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자გი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이 가장 높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강원권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의 자გი지역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1.608로 여타 지역보다 높은 반면, 타 지역에 대한 계수는 반대로 0.373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강원권은 자გი지역에 대한 생산유발계수는 1.337로 가장 낮은 반면, 타 지역에 대한 계수는 0.6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나머지 4개 지역은 대체로 비슷한 생산유발계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გი지역에 대해서는 1.4 내외, 타 지역에 대해서는 0.5 내외를 나타내고 있음.
- 이와 같이 수도권 건설산업이 자გი지역 생산유발효과는 높고, 타 지역 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은 건설생산을 위한 자급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타 지역 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낮게 나타나게 됨.

·반대로 강원권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 중에서 자გი지역 효과는 가장 낮고, 타지역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강원권에서 건설 수요가 발생해도 지역산업구조가 취약하여 외부 지역의 산업 생산물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됨을 의미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



- 한편, 2003년도 기준 지역별 건설산업의 실제 생산유발액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자기지역내에 91조 9,300억원, 타 지역에 21조 3,4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하였음.
- 수도권 건설산업의 자기지역내 생산유발액은 여타 모든 수도권 내 전 산업이 유발한 생산유발액의 13.5%를 차지하였음.
- 또한, 수도권 건설산업의 타 지역 생산유발액은 여타 수도권 모든 산업이 타 지역에 대하여 유발한 생산유발액의 18.2%를 차지하였음.
- 강원권 건설산업은 자기지역내에 9조 200억원, 타 지역에 4조 4,000억원의 생산을 유발하였음.
- 강원권 건설산업의 자기지역내 생산유발액은 강원권 모든 산업이 유발한 생산유발액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대하여 유발한 생산유발액의 비중은 35.5%를 차지.

- 본 분석을 통하여 건설산업은 자გი지역은 물론 타 지역에 대해서도 높은 생산유발효과를 제공하는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음.
- 28개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의 경우 전 업종 중에서 건설업이 가장 높은 자გი지역 및 타 지역 생산유발액을 창출하고 있음.
- 경북권은 전자 및 전기기기 업종, 경남권은 수송장비 다음으로 높은 자გი지역 및 타 지역 생산유발효과를 보이고 있음.
- 이상과 같이 건설업이 모든 지역에서 여타 어느 업종보다 높은 자გი지역 및 타 지역 생산유발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가 높은 데다가 건설부문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수요 자체가 크기 때문임.

2003년도 지역별 건설산업의 생산유발액

(단위 : 십억원,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자기 지역	타지역	자기 지역	타지역	자기 지역	타지역	자기 지역	타지역	자기 지역	타지역	자기 지역	타지역
건설생산유발액	91,930.2	21,341.7	9,023.1	4,407.0	20,027.6	8,422.0	23,804.1	9,186.2	19,792.3	7,599.6	30,899.8	10,468.8
전산업대비 비중 ^{주)}	13.5	18.2	26.2	35.5	15.3	18.3	16.4	22.7	14.4	16.8	11.5	12.6
28개 업종 중 순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1위	2위	2위	2위	2위

주 : 지역내 모든 산업이 자გი지역 또는 타지역에 대하여 발생시킨 생산유발액에 대한 건설산업 생산유발액의 비중을 의미함.

■ 지역간 건설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

- 건설산업은 대표적으로 전방연관효과는 낮고, 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임.
- 즉, 건설산업은 고정자본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타 산업 생산을 위한 중간투입 비중이 약하여 전방연관효과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타 산업의 중간생산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후방연관효과는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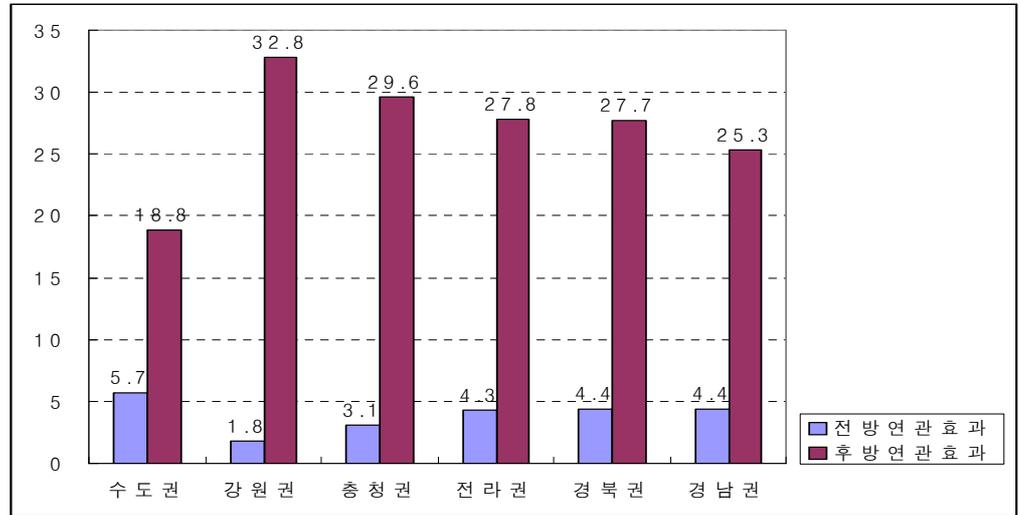
- 이러한 건설산업의 지역간 전방연관효과는 건설산업 생산활동이 타 지역 산업과 상호의존 관계를 맺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으로 사용됨.
 - 건설산업의 전방연관효과는 해당 지역건설 생산물이 다른 지역 산업의 중간재로 많이 투입될수록 크게 나타남.⁵⁾
 - 건설산업의 후방연관효과는 해당 지역 건설생산을 위하여 다른 지역 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많이 구매할수록 크게 나타남.⁶⁾
- 건설산업의 지역간 전방연관효과는 수도권이 5.7로 가장 높은 반면, 강원권은 1.8로 가장 낮고, 충청권은 3.1, 여타 3개 권역은 4.3 내지 4.4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건설산업의 지역간 후방연관효과는 수도권이 18.8로 가장 낮고, 강원권은 32.8, 충청권은 29.6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와같이 건설산업의 기본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역간 전방연관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산업활동 수준과 건설활동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즉, 수도권 건설산업이 지역간 전방연관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리모델링과 같은 개보수 등 중간생산활동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며, 지역간 후방연관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건설생산의 타 지역 의존 비중이 낮기 때문임.
 - 이와 반대로 강원권은 신규투자 중심의 토목건설 비중이 높아서 지역간 전방연관효과는 낮은 반면, 건설생산을 위한 타 지역 산업에 대한 의존 비중이 높아 지역간 후방연관효과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5) 건설산업의 지역간 전방연관효과는 특정 지역내 모든 생산품에 대한 부가가치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총 건설 생산물 단위 중에서 타 지역에서 과급되는 생산물 단위의 평균적인 비율을 의미

6) 건설산업의 지역간 후방연관효과는 특정 지역내 모든 생산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경우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총 건설생산물 단위 중에서 타 지역에 과급되는 생산물 단위의 평균적인 비율을 의미

지역별 건설산업의 지역간 전후방연관효과

(단위 : %)



■ 지역별 건설산업의 고용구조와 유발효과7)

- 2003년 기준으로 전국의 건설 피용자 수는 총 157만명이고, 이중 47.9%인 75만 2,000명이 수도권 피용자임.
- 수도권 다음으로는 경남권 25만 6,000명(16.3%), 전라권 18만 3,000명(11.6%), 충청권 16만명(10.2%), 경북권 15만 2,000명(9.7%)이며, 강원권은 6만 7,000명(4.3%)으로 가장 적음.

지역별 건설산업의 피용자 수

(단위 : 천명, %)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건설 피용자 수	752	67	160	183	152	256	1,570
지역별 건설피용자 구성비	47.9	4.3	10.2	11.6	9.7	16.3	100.0

7) 고용구조와 고용유발효과는 취업자 기준과 피용자 기준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취업자 기준은 임금소득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되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피용자 기준은 임금소득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인원과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남. 본 분석에서는 실질적인 고용구조와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용자를 기준으로 분석함.

- 지역별 건설업 피용자의 지역내 전체 피용자에 대한 비중을 보면, 강원권이 18.5%로 가장 높고, 전라권 14.9%, 충청권 13.5% 순으로 나타남.
- 경북권이 12.4%로 가장 낮고, 수도권과 경남권도 각각 12.5%와 12.7%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강원권은 건설 피용자 비중이 전체 제조업 피용자 비중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지역별 건설업 피용자의 지역내 피용자 비중

(단위 : %)



- 좀 더 구체적으로 피용자 기준 건설산업의 지역내 위상을 살펴보면, 28개 업종 중 강원권과 경남권은 건설업의 지역내 피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등도 교육 및 보건 다음으로 지역내 피용자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상의 결과로부터 건설업은 특히 지역경제에서 고용측면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음.

28개 업종 기준 건설피용자수의 순위

(단위 : 천명)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1위	교육 및 보건 (819)	건설 (67)	교육 및 보건 (194)	교육 및 보건 (207)	교육 및 보건 (173)	건설 (256)	교육 및 보건 (1,703)
2위	건설 (752)	교육 및 보건 (55)	건설 (160)	건설 (183)	건설 (152)	교육 및 보건 (255)	건설 (1,570)
3위	도소매업 (722)	국방 및 행정 (47)	도소매업 (94)	도소매업 (120)	도소매업 (115)	도소매업 (193)	도소매업 (1,278)
4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668)	도소매업 (33)	공공행정 및 국방 (88)	공공행정 및 국방 (90)	전기 및 전자기기 (95)	수송장비 (17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974)
5위	금융 및 보험 (341)	음식점 및 숙박 (28)	전기 및 전자기기 (78)	음식점 및 숙박 (80)	공공행정 및 국방 (71)	운수 및 보관 (143)	음식점 및 숙박 (688)
전산업	6,033	361	1,193	1,231	1,224	2,011	12,054

- 지역별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지역내 건설생산활동 10억원당 유발되는 지역내 및 타 지역 전산업에 대한 고용유발효과를 의미함.8)
- 10억원당 건설업의 고용유발인원은 수도권이 17.0명으로 가장 많고, 강원권이 14.9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자가지역에 대한 고용유발계수 역시 수도권이 15.5명으로 가장 높고, 강원권이 11.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타 지역에 대한 고용유발계수는 강원권이 3.4명으로 가장 높고, 수도권이 1.5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수도권 건설산업은 자가지역 고용유발효과가 높으나 강원권 건설산업은 타 지역 고용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 건설산업은 타 지역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반면, 강원권 건설산업은 타 지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임.
-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모든 지역에서 전산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8) 건설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건설업은 물론 전체 여타 산업에 미치는 고용효과를 포함하는 것임.

·따라서 건설산업 활동은 지역경제 내는 물론 타 지역에 대해서도 높은 고용을 유발하는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음.

지역별 건설산업의 고용유발계수

(단위 : 명/ 억원)

구 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권	전국
건설업	계	17.0	14.9	15.9	15.5	15.5	16.3
	자გი지역	15.5	11.5	12.9	12.5	12.5	13.9
	타지역	1.5	3.4	3.0	3.0	3.0	2.6
전산업	계	12.1	12.9	10.7	10.2	10.7	10.3
	자გი지역	11.0	10.4	8.2	8.1	8.3	8.1
	타지역	1.1	2.5	2.5	2.1	2.4	2.2

■ 요약 및 시사점

-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지역적 특성과 구조적 상호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요약

- 첫째, 6개 권역 모두에서 건설산업은 규모가 크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전체 산업 산출액에서 건설 산출액의 비중은 최소 7%대 이상을 차지하고 강원권은 거의 17%대에 육박함.
 - 28개 업종 기준으로 보면, 건설 산출액은 모든 지역에서 3~4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강원권은 1위를 차지하고 있음.
 - 산출액뿐만 아니라 고용 측면(피용자 기준)에서도 건설업은 지역내 전체 산업 피용자 수의 12% 이상을 유지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원권은 지역 내 전체 피용자 수의 18.5%를 건설업 종사자가 차지하고 있음.
 - 28개 업종 분류 기준으로 보면, 건설 피용자 수는 모든 지역에서 랭킹 2위 이내에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원권과 경남권은 건설업이 제일 고용을 많이 하는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음.

- 둘째, 건설업은 전형적인 지역분산 내지 밀착형 산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건설산업은 특정 지역 집중도가 가장 낮은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 또한, 특화산업의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 역시 강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1에 가까운 전형적인 지역산업적 특성을 나타냄.
 - 강원권은 전반적인 지역경제는 취약한 반면, 건설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 특화산업으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건설업은 지역산업으로서의 보편적 특성이 강하나, 부가가치율이나 전후방연관효과 등에서 지역적 특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셋째, 건설산업은 타 산업보다 자გი지역내 및 타 지역 생산과 고용 파급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გი지역에 대해서는 1.5 내외, 타 지역에 대해서는 0.5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
 - 건설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지역내 모든 산업이 유발한 자გი지역내 생산유발효과의 1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 대한 효과의 비중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이는 건설산업이 산업 활동의 특성 및 시장 크기 요인으로 인하여 여타 산업보다 지역내 및 지역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건설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고용 측면에서도 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는데,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15명 내외로서 10명내외의 효과를 보이는 전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გი지역에 대한 고용유발은 13명 내외, 타 지역에 대한 고용유발은 3명 내외로 전산업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넷째, 건설산업은 이상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상이한 구조 및 파급효과를 보이고 있음.
 - 무엇보다 지역별로 건설투자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강원, 전라권과 같이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건설투자 비중이 높고, 특히 공공건설 부문의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하여 수도권, 경남권과 같이 지역경제 기반이 양호한 지역일수록 건설투자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주로 주택 및 비주택과 같은 민간건축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 건설활동의 지역간 파급효과에서도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즉, 대체로 지역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저성장지역보다 자가지역에 대한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타 지역에 대한 효과는 적게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지역별 건설투자의 구조 및 파급효과 효과의 차이는 지역경제의 성장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내적 충실도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보다 많은 지역내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함.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 본 분석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지역경제에 대한 건설산업의 위상과 영향력은 대단히 크며, 따라서 지역경제에서 건설투자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작용함.
 - 건설산업은 실질적인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높은 산업이므로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피용자 기준으로 본 건설산업의 지역 고용자 수 및 파급효과는 타 업종보다 큰 특징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 건설투자의 필요성이 강조됨.
- 둘째, 지역경제를 위한 건설산업 정책의 일반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향후 건설투자정책은 지역별로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음.
 - 이미 우리 경제는 지역별로 상당한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차별화 현상이 나타남은 물론 이에 따른 건설투자의 패턴도 지역별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건설산업 정책이 요구됨.

- 수도권 및 경남권과 같은 상대적으로 발전된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의 건축수요 비중이 높아지고 이것이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게 되므로 특히 주택부문의 활력 및 안정성 유지를 중시하는 정책이 요구됨.
 - 이에 비하여 강원권 및 전라권과 같이 상대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지역은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그것도 공공부문으로부터의 투자 의존 비중이 높으므로 공공건설투자정책은 핵심적인 지역경제정책이 됨.
 - 다만, 낙후된 지역의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의 지속적 확대는 한계가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지역경제의 타성적 침체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지역경제 성장기반 강화 전략이 요구됨.
- 본 분석은 지역건설산업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이에 기초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건설업체의 지역별 수주활동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갖고 있음.
- 본 2003년도 지역산업연관표는 건설활동의 지역간 교역에 대하여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수요는 모두 그 지역의 생산활동으로 처리하여 업체간 지역별 수주의 실태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건설산업 활동은 전형적인 지역내 활동으로 분류됨은 물론 지역간 파급효과도 건설업으로부터 직접 파생되는 수요는 제외되어 실질적인 지역간 효과 및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자료를 토대로 지역간 건설수주 실태를 반영하는 별도의 가공 처리와 분석이 요구됨.

윤영선(연구위원.ysyoon@cerik.re.kr)